

올겨울 기온 평년보다 높고 눈 많다

광주기상청, 11월~내년 1월 전망

7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 겨울(11월~2024년 1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눈·비가 내리는 날이 잦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 기상청은 6일 "7일 낮 최고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전날 낮 최고기온(17~21도)에 견줘 5도 내외로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8일에는 그보다 2~5도 가량 더 기온이 떨어져 전남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6일 비가 그침에 따라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2023년 11월~2024년 1월) 전망에 따르면 올 11월과 12월은 평균기온이 평년(7.0~8.2도)보다 비슷하거나 높고,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은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 비슷할 확률 40%를 보여 올겨울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따뜻한 날씨를 보일 가능성이 크겠다.

오늘 낮 최고 기온 큰 폭 하락

내일 전남 내륙 아침 영하권

내년 1월 강수량 평년 수준

다만 일시적으로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는 날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때때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서는 12월에도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여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확률이 40%로 예측된다. 일시적으로 북쪽에서 불어오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도 있겠다.

내년 1월에는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이 떨어져 평균기온이 평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은 올 겨울 광주·전남지역이 평년보다 따뜻한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가을철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뚜렷한 '쌍극자 패턴'이 지속된다는

점을 꼽았다. 쌍극자 패턴은 해수면 온도의 편차가 남쪽과 북쪽에서 서로 반대 부호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북대서양에서 지속적인 쌍극화 패턴에 의해 대기 중에 열에너지가 공급돼 한반도 상공에 따뜻한 고기압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11월과 12월 광주·전남지역의 평균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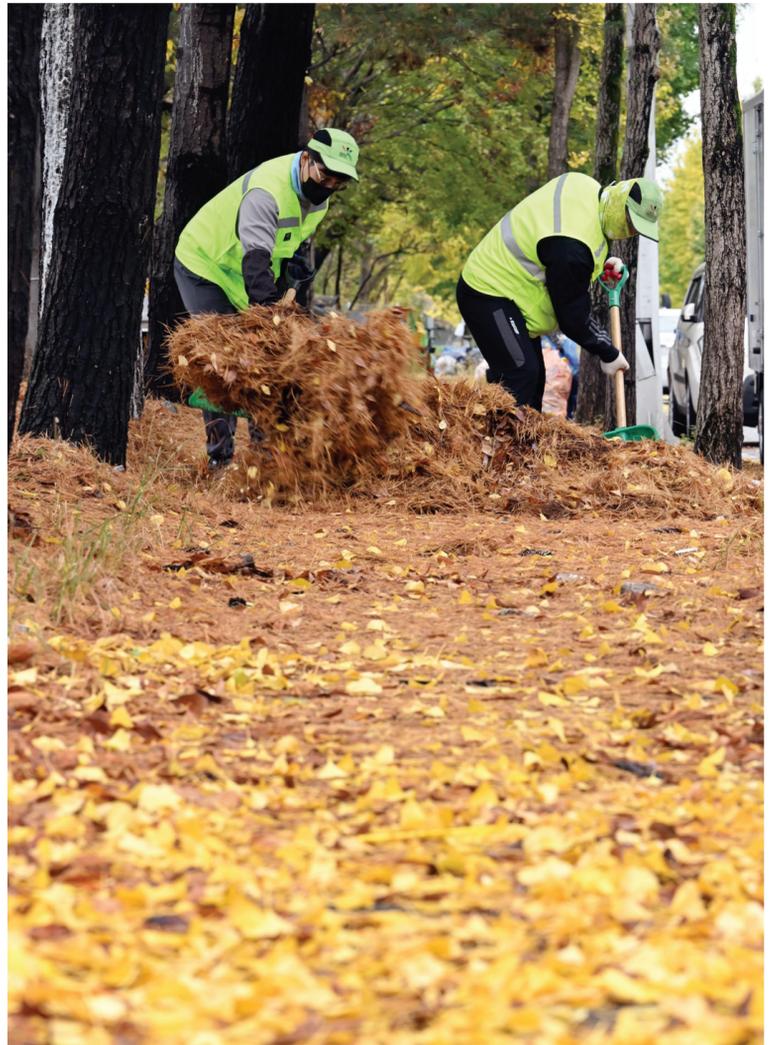
다만 북극 빙하의 해빙정도에 따라 변동성이 있겠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강수량의 경우 11월과 12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고, 내년 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지난해 극심했던 가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해 5년간 광주지역에서 이어진 한파에 의한 한랭질환자, 수도 계량기 파손 등의 피해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같은 기간 없었던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지난 5년 평균 한랭질환자는 5.4명(2018년 7명, 2019년 4명, 2020년 5명, 2021년 7명, 2022년 4명), 평균 수도 계량기 파손피해는 208건(2018년 11건, 2019년 5건, 2020년 540건, 2021년 110건, 2022년 376건)에 달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남만 보다 안전 6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도로에서 북구청 청소행정과 청소기동반원들이 배수로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낙엽을 치우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홍수·가뭄 대비 영산강·섬진강 물관리 한다

환경부, 종합 계획 마련...유역 물 환경 관리 등 5개 분야

환경단체 "치수·제방에 집중...수질 환경 고려 안 된 계획"

영산강·섬진강의 물 관리를 위한 최상위 계획(10년)인 '영산강·섬진강·계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종합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됐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6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종합계획의 주요 골자는 최근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홍수와 극한 가뭄 등 기후 위기 대응책이다. 추진 부문은 지속가능한 물 이용,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안전 확보, 유역 물 환경 관리와 보전·복원 등

5개 분야다. 영산강 유역은 하천유지유량 부족, 수질관리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섬진강유역은 용수의 80%를 여수산단 등 유역 외로 공급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한 현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종합계획에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극한가뭄 등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 주암·장흥댐 연계로 용수공급 안정화, 극한 가뭄 대비 대체 수자원 개발(하수재이용, 해수담수화 등), 지역별 강우 특성을 반영한 도시침수 대응 사업 추진 등

물재해 예방을 위한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

광주 제1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분류 수질에 영향이 큰 지류·지천에 대한 중점관리 등 수질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지역환경단체는 수질환경이 우선 고려돼야 함에도 치수와 제방을 위한 물 관리에만 집중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지역은 섬진강 유역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뭄에 대비해 영산강 유역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도록 수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 "영산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을 절취해 물을 흐르게 해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단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서 아파트 방음벽에 야생 조류 '떼죽음'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방음벽 인근에서 야생조류 20여 마리가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6일 광주 동물보호 단체 '성난비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의 한 아파트 방음벽 주변에서 조류 총독으로 인해 야생조류 22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발견된 사체는 밀화부리 20개체, 멧비둘기와 호랑지빠귀 각각 1개체로 확인됐다. 밀화부리 사체는 17개체는 온전하게, 나머지 3개체는 동물 등에 의해 훼손된 채 발견됐다는 점에서 17마리가 한꺼번에 방음벽에 충돌해 죽은 것으로 분석된다.

밀화부리는 겨울철 한국을 찾아 먹이를 먹으며 월동한 뒤 이듬해 일본과 중국 등으로 이동하는 철새로, 한국에서는 주로 번식기와 겨울철에 목격된다.

성난비건이 조사하고 국립생태원이 검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는 2688개체가 올해 1~8월까지 1417개체가 광주에서 조류 총독으로 죽었다.

지난해 기준 광주에서 새들이 가장 많이 충돌한 장소는 방음벽으로 전체의 83%인 2181건에 달했다. 이어 건물 유리창 306건(12%), 기타 구조물 138건(5%) 순이다. 방음벽은 주변에 심어진 나무나 관목 등으로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 새의 사체나

그 흔적이 비교적 오래 남아 많이 관찰됐다는 계단체의 분석이다.

총독으로 죽은 새들의 종을 보면 멧비둘기가 2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천연기념물인 새매, 참매, 소쩍새, 팔색조 등 7종의 법정 보호종 피해도 16건이나 집계됐다. 뽕물새 27건, 곤줄박이 8건, 큰오색 딱따구리 5건, 꾀꼬리 2건, 황로 1건 등 '광주시 지정 보호 야생동물' 목록에 포함된 조류 피해도 43건이었다.

성난비건은 "과도한 도심화와 계속되는 개발로 야생동물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만큼, 건물 유리창, 유리난간에 조류 충돌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단인 기자 kdi@

광주 은둔형 외톨이 절반 "취업 실패·대인 관계 탓"

2030·여성층 급증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의 주요 은둔 계기는 취업과 대인 관계이며, 20~30대와 여성층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사회서비스원이 공개한 광주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둔 계기에 대해 취업(26.3%), 대인관계(23.9%), 학업(16.7%), 정신적 어려움(15.6%), 가족(12.2%) 등 순으로 많은 답변이 나왔다.

은둔 기간은 1~3년(40.9%), 6개월~1년(39.5%)이 많았으며 연령대는 20대(54.5%)와 30대(30.8%)가 85.3%를 차지했다.

2020년 1차 연구조사와 비교해 20~30대 비율이 75.5%에서 9.8%p 높아졌고, 여성 비율도 1차 37.4%에서 46.5%로 9.1%p 증가했다. 은둔생활 중 평상시 주로 하는 활동은 스마트

폰(35.2%)과 인터넷 게임(19.2%) 등 이었으며, 52.1%는 가족과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이 희망하는 도움 방법은 온라인 1대1 멘토(22.3%), 인근 상담시설 방문(19.2%), 또래와 함께하는 활동(14.2%), 방문 서비스(8.2%) 등의 순이었다. 필요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16.8%), 취업 지원(14.4%), 심리적 지원(13.6%), 치료 지원(10.5%) 등 순으로 꼽았다.

연구 보고서에서는 은둔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맞춤형 직업 재활 상담사 연계, 1인 기업에서의 일 경험 시작,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일대일 또는 일대 다수 온라인 멘토링 제도 구축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은둔 당사자 181명, 과거 은둔 경험에 있는 당사자 142명, 은둔 가족원을 둔 가족 90명 등 총 413명을 대상으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www.jcc.or.kr